

수족구병 예방수칙

하나,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외출 전 후, 배변 후, 식사 전 후, 아기기저귀 교체 전 후

둘,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 지켜주기

셋,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분류소독하기

넷, 증상이 있는 경우 소아과 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받기

다섯, 수족구병을 진단 받은 경우 자가격리(자택격리)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122-701)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194 <http://cdc.go.kr>

신고/보고 및 문의사항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02)380-2640, 2643 전염병감시과 02)380-2662, 2656 <http://nids.cdc.go.kr>

※ 2009. 6. 19 지정전염병 고시, 발생 시 7일 이내 보고 간염·폴리오바이러스과 02)380-2985, 2987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032)740-2703, 051)973-6525 (<http://travelinfo.cdc.go.kr>)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수족구병이란 무엇일까요?

1 원인병원체는 무엇인가요?

- 가장 흔한 원인은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 등 장내바이러스에 의해 주로 영·유아에게 발생합니다.

2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 가벼운 미열과 함께 혀, 잇몸, 뺨의 안쪽의 점막, 손, 발 등에 빨갛게 선이 있는 쌀알크기의 수포성 발진이 생기며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발진은 호전됩니다. 일부의 경우 손, 발을 제외하고 입안에만 포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병은 '포진성 구협염'이라고 하며 수족구병과 경과는 동일합니다.
- 합병증은 흔하지 않지만 콕사키 A16 감염의 경우 드물게 무균성(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감염 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발생하며 이 경우 뇌염, 소아마비와 유사한 마비 등의 보다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수족구병이 의심되거나 진단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족구병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은 뒤에는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는 피해야 합니다.
- 자택 격리 중 열이 높고 잦은 구토 등,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증상완화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4 어떻게 전염되나요?

- 수족구병의 잠복기는 3~7일이며 발병 1주일이 가장 전염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수족구병에 걸린 환아(환자)의 대변 또는 침, 가래,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접촉 하거나 이러한 것으로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등)과의 접촉을 통하여 전파됩니다.

5 언제 어디에서 주로 발생 하나요?

- 주로 여름철과 가을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발생하며,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이 모인 곳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동일시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도 발생이 증가합니다.

6 어떻게 예방 하나요?

- 수족구병은 대개 손발에 묻은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족구병이 진단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현재까지 수족구병에 대한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므로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히고 이를 생활화하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철저한 손씻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어른들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